

11월 《內經》 講讀 토의내용 정리¹⁾

慶熙大學校 白 上龍

<定理方法>

- *文段의 番號는 綱目的 篇題를 그대로 引用하였음.
- *한 討論者가 여러번에 걸쳐 發言하였다 할지라도 主題가 같고 發言內容이 脈을 같이 할 때는 定理者 任意대로 한 文章으로 묶어 定理하였음.
- *討論者의 이름은 發言內容의 끝에 ()로 表示하였음.
- *討論主題와 그 發題者를 討論內容의 앞머리에 表示하였음.
- *冊의 內容中 討論主題가 들어있는 文段은 全段을 옮겨 적었으며 討論內容이 없는 文段은 定理에서 刪去하였음.

第四章 藏象

<1>.藏象(藏은 象은 相對的인 意味로 藏은 감춘다는 뜻이고 相은 드러낸다는 뜻이다.(洪元植))

1.臟腑

(38)《素問 六節藏象論篇第九》帝曰 藏象何如? 岐伯曰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其華在面 其充在血脈 爲陽中之太陽 通于夏氣.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其華在毛 其充在皮 爲陽中之太陰 通于秋氣.腎者 主竅封藏之本 精之處也 其華在髮 其充在骨 爲陰中之少陰 通于冬氣.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 其味酸 其色蒼 此爲陽中之少陽 通于春氣.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命曰器.能化粗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唇四白 其充在筋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于土氣 凡十一藏 取決于膽也.

< 討論 >

*“肺者 爲陽中之太陰.腎者 爲陽中之少陰”.

上記文章의 太陰과 少陰은 一般的인 配屬과 差異가 있다.(洪元植)

1.三陰三陽에서는 肺는 太陰,腎은 少陰이지만 四象에서는 腎이 太陰,肺가 少陰이 되어야 하는데, 이 文段은 四象으로 論한 것이므로 肺는 少陰,腎은 太陰으로 바꾸어 보아야 한다.(尹暢烈)

2.事物은 象과 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때 象은 四象으로 天地를 나타내고 數는 五行으로 四象에 품가 들어 가는 主觀的인 世界로 四象이 獨立的이고 客觀的인데 比하여 連續的이고 서로 關聯되어 있다.따라서 밖의 상태는 客觀的인 四象으로 觀察할 수 있지만 안의 狀態는 五行으로 나타내야 한다.五行으로 이를 살펴보면 少陰에서 始作하여 太陰에서 一生의 用事를 마치게 되며 이 것은 씨앗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고 一生을 마치는 것과 같으니,겉질을 太陰으로 보고 陽氣를 潛藏하여 새로운 씨앗을 生成하는 것을 少陰으로 볼 때 原文은 妥當하다.即 五行으로 觀察하면 太陰은 겉질이고 少陰은 새로운 씨앗이다.(朴贊國)

1) 이 글은 1992년 11월 6일에 개최되었던 대한 한의학회 원전의사학회의 신편황제내경을 교재로 한 홍원식 교수님의 강독중 참석자의 토론내용을 경희대학교 원전의사학교실의 백상룡조교가 정리한 것임.

3.陰陽은 항상 變化하는 象이므로 固定하여 말할 수 없다.그러므로 陰中之太陰이란 글자에만 局限되어 解析할게 아니라 秋의 氣象을 理致로 解析하여야 한다. <孟子 滕文公章句上>에 “秋陽以暴之”라 하고, <素問 四氣調神大論>에 “天氣以急,地氣以明”이라 하였으며, 秋는 萬物이 結實되어 五穀百果가 豊盛하여 陰이 가장 確然히 드러나는 季節이므로 陽中之太陰이라고 할 수 있다.또 冬은 秋의 收斂을 더욱 精微롭게 藏하여 冬至에 一陽을 始生하는 계절이므로 陰中之少陰이라고 할 수 있다.(황원덕)

4.陰陽中에서 다시 陰陽을 나누면,陰中の 陽은 少陽이고 陽中の 陰은 少陰이므로 肺를 少陰,腎을 太陰이라 해야한다.<金匱要略>에 하루를 陰陽으로 區分하여 五臟과 關聯시켜 論하고 있는데, 平旦에서 日中까지는 陽中之陽으로 心에, 日中에서 黃昏까지는 陽中之陰으로 肺에 所屬시켜 論하고 있다.여기서 비록 四象이란 말은 없지만 易의 四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肺를 陽中之少陰이라 해야하고, 腎을 陰中之太陰으로 해야 옳다고 본다.《靈樞》의 <九針十二原> 및 <陰陽繫日月>篇에서도 이와 똑같은 文이 나오는데, 모두 肺를 陽中之少陰,腎을 陽中之太陰이라고 하였다.또한 우리가 原文이라고 하는 것은 王冰本이다.그러므로 이 文을 教祖示 할 必要가 없다.얼마든지 筆寫할 때 誤字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內經》의 別文이라 할 수 있고 王冰本보다 時代가 앞서고 있는 《甲乙經》이나 《太素》에서 肺를 陽中之少陰,腎을 陽中之太陰이라 하고 있다.結論적으로 말해서 尹昌烈教授가 앞에서 말 하였듯이 陰陽四象으로 말할 때와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말할 때는 區分해야 한다고 본다.즉 陰陽四象으로 말할 때는 肺를 少陰 腎을 太陰이라 해야 하지만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말할 때는 肺를 太陰 腎을 少陰으로 해야 할 것이다.(金重漢)

5.이 단원은 臟腑를 機能的인 面에서 論하고 있으며 五와 六은 서로 竊(五臟六腑,五運六氣等)을 이룬다.韓醫學에서 人體를 觀察할 때는 成數((5,6)의 機能的인 面에서 觀察해야 하며,따라서 이 단원의 陰陽 配屬은 四象의 觀點이 아닌 六氣의 觀點의 陰陽 配屬이어야 한다.그러므로 여기서는 六氣의 陰陽 配屬 觀點에 따라 原文대로 보는 것이 좋다.(金우호)

*“전中자 臣使之官”에서 전의 發音은 ‘단’으로 읽어야 한다.中國語나 漢字의 發音과 發音標記의 大部分이 ‘전’을 단으로 하고 있다.(尹暢烈)

1.단이 전으로 읽혀진 것은 ‘길’이 ‘질’로 변하는 것과 같은 口蓋音化 現象으로 볼 수 있으며, ‘단中’의 단은 祭壇의 단의 意味와 相通한 것 같으므로 發題者의 意見에 同意한다.(朴贊國)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에서 ‘罷極’의 뜻은 무엇인가? 既存의 大體的인 뜻은 ‘疲勞를 이긴다’와 ‘疲勞를 견디다’의 意味로 쓰이고 있다.(洪元植)

1.罷極之本의 罷極을 疲勞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學說이 있고,또 餘他臟腑의 說明이 각기 그 臟의 綜合的인 生理的 機能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肝의 全體的인 生理作用 즉 肝의 活潑한 生發作用으로 보아 ‘罷’는 큰곰 熙字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최근의 어떤 學者의 主張도 있다.極의 意味?(金重漢)

2. '罷'는 큰곰 熊의 뜻으로 힘찬 生氣를 表現하는 것이라고, 高世栻은 그의 注에서 말하고 있다.(金仁락)

39) 《靈蘭秘傳論篇第八》黃帝問曰 願聞十二藏之相使 貴賤何如?岐伯對曰 實乎哉 問也 請遂言之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1.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脾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 能出矣.凡此十二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 下安 二此養生則壽 沒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 以爲天下者 其宗大危 戒之戒之!

<討論>

*“氣化則 能出矣”

이 文句는 漢代에 氣로 모든 現象을 說明하려고 하는 것과 軌를 같이하고 있으며 後世에 氣化學派가 形成되어 氣化의 論理로 韓醫學의 全般的인 問題에 대하여 說明을 試圖하는 主要한 根據가 되었다.氣化는 寒熱과 升降 두 側面에서 概括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升降은 內的인 側面 寒熱은 外的인 側面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洪元植)

1.“氣化”란 小便을 나가게 한 推進力이다.(尹暢烈)

2.氣化라는 말을 張景岳의 陽氣와 水의 關係를 說明한 것을 引用해서 보면, ‘水를 行하게 하여 植物을 生하고 長하게 하는 것은 모두 陽氣로 因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生命活動의 現象을 氣化라 할 수 있으며, 小便이 나가는 것도 氣化의 한 斷面이라 할 수 있다.(金重漢)

3.“氣化”란 물을 끓게하여 다시 液化시키는 것과 같으니, 人體에 있는 津液을 “氣化”하여 全身에 輸布한다음 그 餘分이 膀胱에 下輸되어 小便으로 排出되니, 卽 “氣化”되어 上輸되지 않으면 小便이나 땀이 排出될 수 없다.(朴贊國)

4.“出”하는 것은 小便뿐만 아니라 人體內的 모든 排泄을 意味하고 있다.(김인락)

5.“氣化則 能出”은 ‘()’의 모든 文句와 相合하여 ‘能力이 生한다’의 뜻이거나 或 대롱이 위가 뚫려야 아래가 疏通되는 것과 같이 “氣化”하여 위가 열려야 아래로 小便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丁彰炫)

(40) 《素問五藏別論篇第十一》黃帝問曰 (余聞方士 或以腦髓爲藏 或以腸胃爲藏 或以爲府 敢問更相反 皆自謂是 不知其道 願聞其說? 岐伯對曰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瀉 名曰奇恒之府). 夫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瀉而不藏 此受五藏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 輸與者也. 魄門亦爲五藏使 水穀不得久藏. 所謂五藏者 藏精氣而不瀉也 故滿而不能實.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 所以然者 水穀入口 則胃實而腸虛 食下則腸實而胃虛. 故曰實而不能滿 滿而不能實也.

<討論>

* ()의 文句로 보아 《內經》의 著作이 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몇가지 事實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內經》을 쓸 때를 前後로 하여 腦髓를 藏 或은 府라 하거나, 腸胃를 藏 或은 府라고 하여 《內經》에서 말하는 五臟六腑의 概念과 다른 主張을 하는 學說들이 存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五臟六腑에 이미 膽이 包含되어 있는데 다시 奇恒之府안에 膽을 論하여 軌를 달리한 두 說이 共存하고 있으니, 卽 五臟六腑에서 膽을 六腑中에 하나로 包含시키고 다시 藏府와 다르다하여 奇恒之府라 名하고 여기에 膽을 包含시킨 것은 《內經》의 著者中에 膽을 六腑라 한 것에 反한 膽을 奇恒之府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內經》은 여러 時代에 걸쳐 여러 사람이 著述한 것 같다.(洪元植).

(41) 《素問刺禁論篇第五十二》 藏有要害 不可不察. 肝生于左 肺藏于右 心部于表 腎治于裏 脾爲之使 胃爲之市. 격황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 從之有福 逆之有久.

<討論>

“心部于表 腎治于裏”를 病理的인 面에서 살펴보면 輕表病은 心病이라 할 수 있고 重久病은 新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疾病을 臟腑別로 나누지 않고 表裏淺深 新久로 나누어 人體를 立體的으로 보고 病이 表에서 裏로 傳變하고 輕證에서 重證으로 進行한다고 볼 때 心은 表의 異常을 代辯하고 腎은 裏의 異常을 代辯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洪元植)

(42) 《素問調經論篇第六十二》 帝曰人有精氣津液 四肢九竅 五臟十六部 三百六十五節 乃生百病 百病之生 皆有虛實. 今夫子乃言有餘有五 不足亦有五 何以生之乎? 岐伯曰 皆生于五臟也 夫心藏神 肺藏氣 肝藏血 脾藏肉 腎藏志 以此成形. 志意通 內連骨髓 而成身形 五臟.(五臟之道 皆出于經隨) 以行血氣 血氣不和 百病乃變化而生 是故 守經隨焉.

<討論>

* “五臟之道 皆出于經隨”는 臟腑와 經絡의 關係를 含蓄하여 概括한 것이다.(洪元植)

(43) 《素問宣明五氣論篇第三十三》 五臟所惡 心惡熱 肺惡寒 肝惡風 脾惡濕 腎惡燥 是謂五惡.

五臟化液 心爲汗 肺爲涕 肝爲淚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

五臟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臟所藏.

五臟所主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是謂五主.

<討論>

* “肺惡寒 腎惡燥”(洪元植)

1. 肺와 腎이 모두 陰藏이지만 肺는 陽氣를 收斂하고 腎은 陽氣를 藏한다. 肺가 陽氣를 收斂할 때에 寒邪를 感觸하면 제대로 收斂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 肺는 毛皮가 커

쉽게 寒邪에 感觸하기 쉽고 腎은 陽氣(精氣)를 藏할 때 水液이 豊富하여야 한다.따라서 肺는 寒을 싫어하고 腎은 水를 必要로 한다.(朴贊國)

2.肺는 嬌藏으로 寒熱燥濕火를 모두 싫어 하지만 여기서는 特定하여 寒만을 論하고 있다.腎이 燥하면 腎陰과 腎陽이 제대로 機能을 發揮하기 힘들다.(尹暢烈)

3.五臟이 모두 非生理的으로 活動하면 五氣(風熱濕燥寒)중 어느 氣運이든지 싫어 할 수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五臟의 惡는 각 生理的인 活動이 非正常的으로 나타나는 現象을 代表的으로 말한 것에 不過하다.肝은 生하는 氣運이 있으므로 過動함을 惡하고, 心은 藏하는 곳이므로 過熱을 惡하고,肺는 鋼寒하면 正常的인 收斂을 할 수 없고,腎은 過燥하면 精을 藏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황원덕)

4.五行으로 配屬으로 보면 肺는 燥,腎은 寒이 妥當하나,實際面을 본다면 本文의 “肺惡寒,腎惡燥”도 잘못이 없다고 본다.이는 《內經》의 餘他文에서도 같은 脈絡으로 서술되고 있다.즉 <藏氣法時論>에서 禁忌를 말함에 “病在腎 禁焯煖熟食溫炙衣”라 하였고,<邪氣藏府病形>에서 “形寒飲冷則傷肺”라 하고 있다.실제로 肺는 皮毛를 主하므로 外部의 寒邪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金重漢)

(44) 《靈樞 本輸第二》肺合大腸 大腸者 傳道之府 心合小腸 小腸者 受盛之府 肝合膽 膽者 中精之府 脾合胃 胃者 五穀之府 腎合膀胱 膀胱者 津液之府也 少陽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藏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是六府之所與合也.

<討論>

*“少陽屬腎”에서 少陽은 少陰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洪元植)

1.“少陰屬腎”으로 하는게 좋다.(尹暢烈)

2.屬을 속한다는의 意味로 풀어 ‘少陽이 腎에 속한다고’하여 생기가 신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虛谷 章楠은 原文을 그대로 보고 있다.(金규열)

*三焦의 有形 無形

1.三焦는 有形이며 景岳의 說明이 자세하다.(尹暢烈)

2.三焦의 形態는 確實하게 區分지을 수 없으므로 無形으로 하는 것이 옳다?(金규열)

토론자

- 洪元植: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교수
- 朴贊國: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교수
- 金重漢: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교수
- 尹暢烈: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교수
- 황원덕:대명한의원 원장
- 김인락:서강한의원 원장

金字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고전연구소 연구원
金圭烈:세명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丁彰炫: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조교

KYOBO
교보문고